

KIA 윤석민 탈삼진왕·이용규 미기상

프로야구 올스타전 .. MVP에 LG 이병규

KIA 타이거즈 조범현 감독이 이끄는 웨스턴리그가 이스턴리그 올스타를 5-4로 꺾고 2년 만에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23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2011 롯데카드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웨스턴리그(KIA·LG·한화·넥센) 올스타의 4번 타자로 나선 LG 트윈스의 원손 타자 이병규(37)은 4-4 동점인 연장 10회말 2사 1, 3루에서 이스턴리그(SK·삼성·두산·롯데)의 마무리 투수 오승환(삼성)으로부터 좌선상에 떨어지는 끝내기 안타를 뽑아냈다.

이날 2루타 2방 등 5타수3안타 2타점을 올린 이병규는 경기 후 기자단의 MVP 투표에서 유효표 42표 중 34표를 얻어 이스턴리그의 최우수(삼성·3표)를 큰 표 차로 따돌리고 영광을 안았다.

웨스턴리그는 우승 상금 30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외식업체 힙스(VIPS) 상품권, 2200만원 상당의 나이키 야구용품 등 총 6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협상을 쟁쳤다. 이병규는 트로피와 함께 KIA 자동차가 협찬한 K5 승용차를 부상으로 받았다.

9회까지 3-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양팀은 사상 처음으로 연장 10회부터 승부 치기로 돌입했다.

승부치기는 주자를 1,2루에 두고 공격에 나서 점수를 뽑는 방식으로, 경기시간을 줄이고자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부터 공식 경기에 도입됐다.

이스턴리그는 연장 10회 초 무사 1,2루에서 박정권(SK)의 2루 땅볼로 1점을 뽑았지만 계속된 1사 만루에서 홍성흔(롯데)이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면서 주가 득점에 실패했다.

웨스턴리그는 10회 말 똑같이 무사 1,2루에서 공격을 진행했으나 이용규(KIA)와 유한준(넥센)이 범타로 잡혀 패배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정성훈(LG)이 오승환으로부터 깨끗한 1타점 중전 적시타를 뽑아낸 극적으로 4-4 동점을 만들었고 이병규가 오승환의 변화구를 펴올려 좌선상에 떨어지는 바가지 안타를 뽑아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출전한 투수 3왕에게도 도전 중인 윤석



23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1 프로야구 올스타전. 10회 연장 승부치기 끝에 5-4 승리를 거둔 웨스턴리그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KIA)은 4타자를 상대로 삼진 3개를 앓아 내 최다 탈삼진상(상금 300만원)을 수상했다. 멋진 수비를 선보인 이용규(KIA)는 선

구회 미기상상을, 2년 만에 웨스턴리그 승리를 이끈 조범현 감독(KIA)은 승리감독상을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저 결승선을 끊었다.

올해 두 차례나 9초91을 기록하는 데 그쳤던 볼트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편 100m에서 시즌 개인 최고기록을 0.03초 앞당겼다.

그러나 자신이 보유한 세계기록(9초58)에는 0.3초나 뒤졌다.

볼트는 스타트 반응 시간이 0.180초로 함께 편 8명의 선수 중 가장 느렸지만 60m 이후 폭발적인 스피드로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지난해 당한 아킬레스건과 하리 통증 부상에서 완쾌하지 못한 볼트는 “올해 세계신기록을 쓰기는 어렵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9초6~7 대를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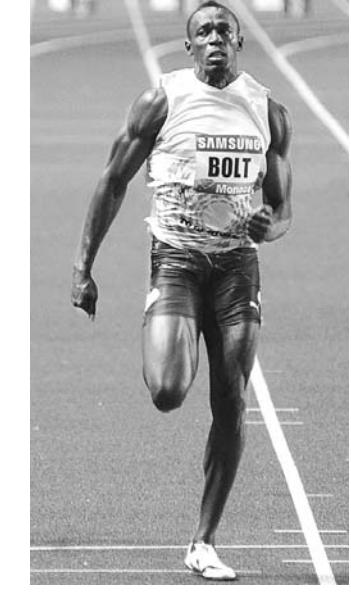
볼트는 3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다

이아온드리그에서 마지막으로 200m를 뛴 뒤 세계선수권대회 준비 체제에 들어간다.

한편 여자 200m에서는 카멜리타 지티(22초 20)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연패에 도전하는 앤리슨 웨일리스(22초32·이상 미국)를 따돌리고 우승했다.

세계대회 3연패에 나선 마리암 유수프 자말(비라인)도 여자 1,500m에서 4분00초59의 기록으로 1위를 달렸다.

이밖에 남자 세단뛰기의 필립스 아이도우(17m36·영국), 남자 800m의 다비드 레쿠타 루디사(1분42초61·케냐), 여자 높이뛰기의 블랑카 블라시체(1m97·크로아티아) 등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후보들도 경쟁자를 따돌리고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연합뉴스



'번개' 우사인 볼트

100m 9초88 우승

국제육상연맹 디아이몬드리그

‘번개’ 스프린터’ 우사인 볼트(25·자메이카·사진)가 육상 남자 100m에서 개인 최고기록을 작성하면서 다음달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 준비를 마쳤다.

볼트는 23일 오전(한국시간) 모나코 몽테카를로에서 끝난 국제육상연맹(IAAF) 디아이몬드리그 100m 결승에서 9초88을 짹고 가장 먼저

역 및 은병원 경유) * 다음카페 : 뉴일주산 악회 T.010-3060-8943

7월28일(목)

▲ 광주산행스케치 덕유 무릉산(원주리·야생화)

7월26일(화)

7월